

연구기능의 확대로 나누어 향후 협회가 추진할 중점업무 계획안이 보고되었다.

『RI등 이용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진 계획』이 보고되었다. 올해 말부터 시작한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조성 안전증진 및 산업발전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포상을 정기적으로 매년 시행하여 RI 이용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RI육성의 인프라를 마련하여 RI 이용진흥에 기여하고자 RI등 이용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을 정기적 협회 주요 행사를 통하여 추진키로 하였다.

종사자에 대한 피폭방사선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방사선장해 발생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고자 현재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피폭관리업무를 확대하여

『방사선종사자 중앙등록센터 설치(안)』이 보고되었다. 종사자의 피폭기록 및 건강진단기록, 교육기록을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기타 『회원서비스개선(안)』 『협회회관 확보방안』이 보고되었다.

끝으로,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내년 예산은 1,139백만원 규모로 금년 1,044백만원 보다 95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회원사 권익증진, 협회위상제고 기반구축 분야의 관련사업에 중점배분하고 있다.

【보고사항】

- 제1호 : 제53차 이사회 결과보고
- 제2호 :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 발전계획(안)
- 제3호 : RI등 이용분야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진 계획(안)
- 제4호 : 방사선종사자중앙등록센터 설치(안)
- 제5호 : 회원서비스 개선(안)
- 제6호 : 협회회관 확보방안

【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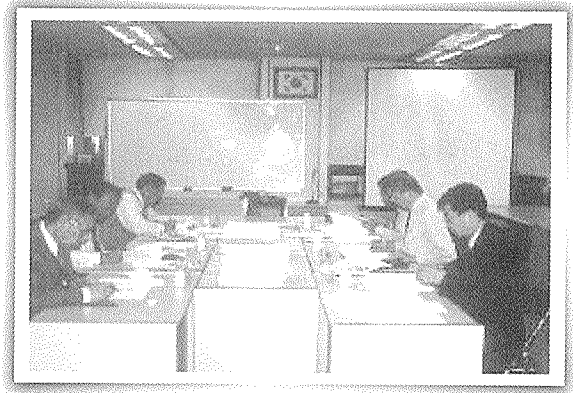
- 제1호 의안 : 2002년도 주요사업 계획 및 예산(안)
- 제2호 의안 : 보수규정 개정(안)
- 제3호 의안 : 회비규정 개정(안)

2001년도 RI등 이용분야 유공자 포상

우리협회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이용 조성, 안전증진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한다.

포상은 산업, 의료, 교육, 연구, 공공분야별로 방사선의 안전증진과 이용진흥 등에 공헌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와 단체에게 각각 과학기술부장관 표창과 협회장 표창이 수여될 예정이다.

지난 8일(토)까지 포상후보자를 접수받아 12(수)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적격후보자를 과기부에 추천하였다. 수상자는 개별 통보를 통하여 발표할 계획이며, 시상은 12월 26일(수) 과학기술부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유공자 포상 심사 위원회

방사선방호업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건의문 제출

협회는 지난 11월23일(금) 방사선방호업무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용원위원장 등 동 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6명에게 제출하였다.

제출된 건의문은 지난 2월2일에 한나라당 김홍신의원등 21명이 발의하여 심의중인「의료법 개정(안)」중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의료용 방사선발생장치」로의 개정함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동 개정(안)과 같이 의료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기관에서 이용되는 모든 방사선발생장치는 원자력법과 의료법에 의거 이중규제를 받아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정부의 2개 부처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모순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 의료법 개정을 반대하며, 단기적으로는 현행체제로 유지하되, 장기적으로는 전문부처가 일괄되게 단일 제도를 운영토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방사선 안전관리는 2원화되어 진단용발생장치에 대한 관리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